



성장 멈춘 편의점
해외진출 등
반등 노린다
L1



Life

K뷰티
미국 현지 공략
맞춤전략 구체화
L2



녹음과 분수 어우러진 청량한 쉼터... 봄 물든 ‘프라이빗 정원’

아파트의 미학(美學)

e편한세상 부평역 센트럴파크

최고 30층 13개동 총 1500세대 규모
조경으로 편안하고 안락한 분위기 조성

녹음 둘러싸인 안개분수, 휴게공간 등
자연과 어우러진 정원서 일상 속 힐링

단지 곳곳에 미디어아트, 조각상 설치
조각상 ‘커넥티드’ 작품으로 공간 연결
테마놀이터로 동심 가득 놀이요소 연출



1 ‘커넥티드’ 조각상으로 새로운 공간을 만든 ‘그랜드 플라자’. 2 자작나무 어우러진 휴게공간 ‘엔틱 가든’. 3 석가산 분수와 청단풍으로 둘러싸인 ‘미스티포레’. 4 단지 내 산책로. /전지원 기자

최근 찾아간 인천 부평구 부평동 ‘e편한세상 부평역 센트럴파크’(부평 2구역).

브랜드를 상징하는 오렌지 구름 로고가 부각된 아파트의 정문은 넓은 직사각형 모양으로 세련된 분위기를 연출했다. 지난해 12월 입주 시작했다. 인천 지하철 1호선 동수역 3번 출구에서 3분 거리에 단지가 보인다. 지하주차장과는 바로 연결돼 주상복합이 아닌 일반 아파트로서는 드문 사례다.

단지 주변으로 인천부평남초, 인천동수중, 부원중, 부평여고 등이 위치해 있다. 모다백화점 부평점, 롯데마트 부평역점 등 생활편의시설도 이용할 수 있다.

DL건설이 시공한 e편한세상 부평역 센트럴파크는 지하 2층~지상 최고 30층, 13개동, 총 1500세대 규모다. 가구 타입은 전용면적 ▲39㎡ ▲49㎡ ▲59㎡ ▲74㎡ ▲84㎡로 중소형 평수 위주의 실속 단지로 구성됐다.

지상에 차가 없는 단지로 설계돼 매연이나 공해 걱정 없이 안전하고 쾌적한 생활이 가능하다. 3~4베이(BAY·전면을 향한 방이나 거실의 수) 혁신 평면을 적용했으며 남향형 방배치를 통해 채광과 일조량, 맞통풍 효율을 극대화했다.

데드스페이스(사용되지 않는 공간)를 최소화해 실사용 면적을 크게 확보했다. 팬트리와 드레스룸도 함께 제공돼 수납 공간이 넉넉하다.

단지에는 e편한세상 부평역 센트럴파크만의 조경이 눈에 띄었다. 넓게 뻗은 단지 내에 광장이 보인다. 정원과 조각상 등도 배치해 주민들에게 편안하고 안락한 분위기를 제공하고 있다.

‘로맨틱 가든’은 운동 시설과 휴게 공간이 어우러졌다. 파스한 봄 느낌의 정원을 조성했다. ‘엔틱 가든’은 스텝가든의 휴게공간과 자작나무를 식재해 이국적이고 프라이빗한 공간을 연출했다.

‘미스티포레’는 석가산의 은은한 안개분수와 청단풍의 녹음으로 둘러싸인 쾌적하고 아늑한 휴식 공간이다. 쾌적한 생태환경의 유지를 위해 연못 안으로의 출입은 금지돼 있다.

미스티포레 옆에는 김승훈 작가의 조각상 ‘라이트플로우’

가 설치돼 있다. 기하학적인 이미지들을 형상화한 도형들을 통해 시각화한 작품으로 몽환적인 이미지로 환기시키려는 창작물이다.

단면에는 미디어아트를 통해 추상적인 순간들을 여러 모습으로 표현했다. 낮에는 형상화된 조형성이 돋보이고 밤에는 미디어로 표현된 빛자욱이 주변을 아름답게 비추어 일상 속 지친 현대인들의 마음을 치유한다.

조각상을 따라 걸어가면 ‘그랜드 플라자’가 보인다. 산책 동선과 어우러진 조형미 있는 캐스케이드형 수경시설이다. 단지의 품격을 높이면서 자연과 시설물을 감사하는 대규모 휴게시설 공간으로 조성했다.

그랜드 플라자 안에는 ‘커넥티드’라는 조각상들도 있다. ‘연결돼있는 공간의 결정체’라는 추상적인 심상의 작품이다. 공간의 레이어들이 결정으로 응축되고 연결돼 새로운 공간감을 만들어낸다는 스토리를 조형화하고 있다.

결정이 쌓여 있는 형태를 점선면으로 이뤄진 추상적 형태로 표현하고 있다. 각기 다른 형태의 군집으로 작품에 리듬감과 무게감의 조화를 이룬다.

파운틴플라자(뽕나무 숲)는 바닥분수와 운동 공간이 어우러져 계절에 따른 유연한 시설을 활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조성됐다. 이외에도 지하 1층에는 피트니스센터, 실내 스크린 골프연습장, 주민회의실, 라운지카페, 실내놀이터, 비즈니스룸 등의 커뮤니티 시설이 갖춰져 있다.

야외에는 근력, 유산소 운동뿐만 아니라 불안정한 자세로 컴퓨터와 스마트폰을 장시간 사용하는 현대인들에게 나타나는 다양한 질병을 예방할 수 있도록 신체의 밸런스를 잡아주고 근력을 강화시킬 수 있는 운동 기구와 테니스 코트 등도 마련했다.

동심 가득한 놀이요소와 공간 연출로 아이들의 활발한 신체 활동을 유도하는 다양한 테마의 놀이터가 설치돼 어린이에 대한 배려도 엿보였다. ‘코랄 아일랜드’와 ‘더 롤링 볼 타운’ 등 다양한 테마의 공간은 아이들로 문전성시를 이룰 것으로 기대된다.

/전지원 기자 jjw13@metroseoul.co.kr

메트로 한줄뉴스



▲홍명보호, 6월 이라크 원정 바스라 개최...전세기 추진
▲‘아쉬운 헤더 경합’ 뒤편 김민재...인터밀란전 최저 평점 /사진 뉴스스

▲한국, U-17 아시안컵 우승 여정 계속...준결승서 사우디와 격돌
▲김혜성, 트리플A서 4타수 무안타 침묵...4경기 연속 안타 마감

▲SSG 랜더스 미치 화이트, 허벅지 부상 털고 첫 출격
▲이정후, 시즌 10호 2루타 ‘광’...이틀 연속 멀티 히트 행진